

터키 7.2 강진... 사망자 200명 넘어

통신·전기 두절 ... 구조작업 악전고투

한국정부, 구조대 급파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터키 동남부를 강타한 지 하루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수색·구조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확인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다.

이드리스 나임 사힌 터키 내무장관은 에르지쉬 군(郡)에서 117명, 반시(市)에서 100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부상자는 109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건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리의 '아비규환'...통신·전기 두절 =전국에서 동원된 구조대가 수색·구조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신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 사망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터키 당국은 사망자만 5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

특히 학생들이 있던 학교 기숙사와 아파트 등 건물 55채가 붕괴된 에르지쉬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터키 당국은 밝혔다.

23일 밤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다 여진에 따른 건물 붕괴가 우려되자 대부분 집 밖으로 나오면서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다.

주민들은 공포에 질린 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일부 주민들은 무너진 건물에 사는 가족, 친지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히 휴대전화를 걸었지만 통신망이 파손되면서 연락이 닿지 않아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베키르 카야 반시 시장은 현지 방

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통신서비스가 붕괴돼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진 발생 직후 반시 교도소 수감자 200명이 탈옥했으며, 이 중 50명은 재수감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수색작업 악전고투 =23~24일에 걸쳐 철야로 진행된 생존자 및 시신 수색작업은 추위와 지진에 따른 정전 사태 등으로 최악의 조건속에서 진행됐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터키 38개 도시에서 차출된 수색·구조요원

1275명과 구급차 145대가 피해 현장으로 급파됐으며, 병력 6개 대대, 헬기 6대, C-130 군 화물 수송기 등도 구조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악전고투 속에서도 24일 새벽 한 건물에 매몰돼 있던 주민 24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터키 민영 도간 통신을 통해 전해졌다.

◇국제사회 지원의사 표명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미국, 러시아, 독일, 그리스 등 각국 정부는 터키에 위로의 뜻을 표하고 구조인력 파견과 구호물자 제공 등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강진 피해를 당한 터



터키 동부서 규모 7.2 강진
자료/미 지질조사국(USGS) 연합뉴스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에르지쉬군(郡)에서 24일 구조대원들이 붕괴된 건물 잔해를 헤치며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한미FTA' 국회연설 합의 불발

輿, 농어업 대책 등 마련 분주

여권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를 위해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나흘간 '끝장토론'을 통해 반대진영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한 데

이여 야당이 요구해 온 통상실차법 처리,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발됐지만 여야에 비준안 조기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등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3대 선결

과제' 등 자신들이 요구해 온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이 없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전날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민주당의 13개 요구사항 가운데 최우선 순위인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발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입장차로 여야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의장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야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장연설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의 시장연설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구간 경계조정 후속조치 없고 세입 줄어"

마광민·오화탁 북구의원

광주시의 구간경계조정이 확정된 이후 주민들과 약속했던 지역발전과 주민편의증진 후속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구간경계조정으로 북구에서 세입 20여억 원과 인구 2만여 명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 북구의회 마광민(민·다 선거구) 의원은 24일 임시회 구성질문에

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도심 공동화 대책, 5개구 불균형 해소, 주민편의 제공, 현행 국회의원 정수 유지의 4대 원칙을 제시했으나 주민과 지역을 위한 어떤 사업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 의원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은 저버린 채 오직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위한 광주관거리만 더러워져서 안 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도심 공동화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화탁(민·마 선거구) 의원도 이날 구성질문을 통해 "구간경계조정 이후 북구 세입 20억2800만 원과 인구 2만2374명이 동구와 서구로 빠져나갔다"라며 "광주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북구는 광주시 자치구 중 사회복지비용 관련 예산 지출이 가장 많아 이 같은 세수 감소는 큰 손실"이라며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북구의 2011년 사회복지비용 관련 예산은 기존 2000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60.23%를 차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문일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내년 총선 12개 지역구 모두 후보낼것"



지난달 27일 취임한 김문일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최근 직능별 외부 인사 영입 등을 통해 당직자 인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1년여 동안 사고 지구당으로 방치되어 온 도당을 추스르고 당원 증원 및 조직강화를 목표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필승 의지를 밝혔다. 최근 조직정비를 마친 김 위원장으로부터 향후 전남도당 운영 계획 등을 들어봤다.

-1년여 동안 사고 지구당으로 방치돼 공백이 컸으로 보인다.

▲사고 지구당으로 지정된 뒤 사실상 도당은 식물공간이나 마찬가지였다. 5000여명에 이르던 책임당원이 1800명으로 줄었다.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지역 당협도 순천, 나주·화순, 장성·영광·함평 등 3곳에 달했다. 이 때문에 중앙 당 정책이나 정부 정책을 지역민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지역민과 소통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영산강 사업을 반대할 때 전남도당은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을 지역에서 만들지 못했다. 도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지역에서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을 수 없는 점이 안타깝다.

-1년여간 공백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

▲우선 공석인 사고 당협위원장 3명을 모시고, 재정 호남총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지역의 봉사활동 단체를 중심

▲지금 지역 당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고 당협위원장에 새로 선임된 위원장들이 벌써 열심히 뛰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12개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석패율제도 등이 도입된다면 일부 지역구의 경우 후보 경선 등의 경쟁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박재순 전 최고위원이 최근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고, 김기룡 전 도당위원장이 특임장관실 특임실장(1급)으로 영전하는 등 중앙당에 당을 위해 고생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배려해 준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역구에 최소한 책임 당원 500명은 있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따라서 당협 차원에서 500여명의 책임당원을 모으는 일도 함께할 것이다. 나부터 모범을 보일 것이다. 담양·곡성·구례에서 최소 1000명의 책임당원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선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계파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무슨 계파가 필요하겠나. 계파보다는 당이 우선이다. 경선에서 이긴 대권후보에게 당세를 몰아 대통령을 만드는 게 도당의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다.

우선 내년 총선을 지역에서 잘 치러달라 대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 강'
한국인의 정취와 정서가 흐르다

문화가 되살아나는 영산강

영산강 강기나의 가볼수록

2011. 10. 27. 목 - 10. 31. 월

나주시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및 영산강 일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주관| 나주시

|대표 프로그램 |

- 10. 27.(목) 20:00 광주 MBC 특집방송 '문화가 되살아나는 영산강', 21:30 영산강 불꽃쇼
- 10. 28.(금) 12:30 KBS 후토스 특별공연, 20:00 젊음의 열기, 댄스 퍼레이드
- 10. 29.(토) 13:30 전라도말 한마당대회, 15:00 오즈의 마법사, 20:00 뮤지컬 '스페셜 레터'
- 10. 30.(일) 13:00 영산강 잇기 떡나눔 축제, 16:30 나주목사 부임행사, 20:00 서울예술단 '비트'
- 10. 31.(월) 11:00 어린이 국립뮤지컬 '아기돼지 꿈꿈이', 17:00 삼현육각연주, 20:00 영산강 가요제

■ 체험행사 : 영산강 등축제(야간), 야간 불빛쇼, 왕건호 및 황포돛배 승선체험, 전통문화체험(막걸리, 식혜, 도자기, 연 만들기, 대나무 공예 등)

■ 전시행사 : 주제 전시관, 다문화가정 모국관, 천연염색 홍보관, 나주 음식 명가전 등

*상기 프로그램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